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박지영*, 이창식**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Ji Young Park*, Chang Seek Lee**

요약 본 논문은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 609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을 제외하고 중간수준보다 낮았으며,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중간수준을 상회하였고, 부정적 복지는 중간수준보다 낮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긍정적 복지와 희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정적 복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과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주제어 :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심리적 복지감, 긍정적 복지, 부정적 복지, 여성결혼이민자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609 women immigrants in 10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First, the acculturative stress except for homesickness was lower than the middle point, and hope and positive wellbeing scored above the middle point. Second, acculturative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hope and positive wellbeing.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ositive wellbeing was testified.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negative wellbeing was also testified.

Key Words : Acculturative Stress, Hope,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Wellbeing, Negative Wellbeing, Women Immigrants

1. 서론

국제적으로 이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새로운 문화의 적응이다. 문화의 특성 중 하나는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민국의 문화는 모국 문화와 달라 새로 학습하고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며,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응은 개인이 지배적인 문

화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통합의 감정과 더불어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속한 문화적 속성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적 속성을 수용하며 채택하는 정도를 지칭할[1]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민자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 개인적 관계와 심리적 만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안녕을 대변할 수 있는 개념이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B00333)

*고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1월 14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2월 20일

[2], 이민자에게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3]인 것이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민자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역기능을 의미한다.

한편 희망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으로[2] 정의하는데 이러한 희망을 이론으로 발전시킨 학자가 Snyder이다[25]. 그는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희망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25][26][13][8][11][16]. 따라서 희망이 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국에 이민 온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결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은 심리적 복지감이다[3][9].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데[4] 삶의 건전함을 상징하는 개념들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이며[5],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20][27].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20]. 결과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복지감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심리적 복지감과 같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 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nyder 등[27]에 의하면 희망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데, 이 때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6]. 또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생겨도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하기 때문으로도[5] 간주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을 보면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8]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복지감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희망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희망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삶에서의 사적 경험에 대해 수용을 잘하고, 보다 많은 사회적지지를 지각하였다. 또한 희망이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21],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8].

끝으로 희망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Chang & Desimone[16]은 희망이 스트레스와 정신병리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보다 더 높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우울감이 덜하며, 대처 방식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우울감을 강력하게 예측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있었으나 최근 한국에서 연구의 관심을 보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그리고 희망의 역할을 다룬 연구에 대한 관심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 의 관계에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 의 관계에서 희망은 매개하는가?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전국 10개 시·도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60~65명씩 650명을 선정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1(2010년 현재)개소 중 지역별 2개, 전체 20개의 센터를 무선표집하여 설문지 609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5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크메르어)로 번역하였고 설문지 회수는 연구자와 연구원의 직접 방문, 전화요청, 우송질문지법, 훈련된 학생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3.4세였으며, 20대가 40.4%로 30대, 40대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49.1%, 전문대졸이상 26.9% 순이었다. 거주지는 도시가 54.3%로 농촌 45.7%보다 많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 27.8%, 필리핀, 일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11-15세가 29.8%, 5-10세가 29.0%, 16세 이상이 24.8%로 나타나 부부간 연령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지 않는다가 66.2%로 높았다. 소득수준은 보통이다가 52.8%, 부족한 편 33.2%로 보통 이하라고 반응한 여성결혼이민자가 85%를 상회하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은 2-5년이 47.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 & Asrabadi[29]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번안하여 유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이승종[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편견이나 차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각된 차별감(8문항), 모국의 집이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4문항),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느낌 등을 나타내는 지각된 적대감(5문항), 개인적인 안전문제를 포함한 두려움(2문항),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불편함을 나타내는 문화적 충격(3문항), 모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죄책감(2문항), 언어적 차이나 열등감과 사회적 고립 등의 기타(12문항), 그리고 이사(1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와 이사 문항을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지각된 차별감 Cronbach's α =.891, 향수병 Cronbach's α =.774, 지각된 적대감 Cronbach's α =.846, 두려움 Cronbach's α =.641, 문화충격 Cronbach's α =.738, 죄책감 Cronbach's α =.539로 죄책감은 신뢰도가 낮았지만 문항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2.2.2 희망

본 연구에서 Snyder 등[12]이 개발한 특성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윤희 등[10]이 한글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K-DHS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4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4=분명히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위문항을 제외하고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포함한 희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6으로 나타났다.

2.2.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Bradburn[15]의 긍정적 복지(positive wellbeing)와 부정적 복지(negative wellbeing) 분류모형을 기초로 황성용[12]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은 과거만족, 미래만족, 현재만족을 측정하는 13개의 긍정적 복지 문항과 소외감, 좌절경험, 사회관계 단절, 역할상실을 측정하는 12개의 부정적 복지 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긍정적 복지의 Cronbach's α =.862, 부정적 복지 Cronbach's α =.896으로 신뢰도가 대체로 높았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C+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

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0]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은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및 해석

3.1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상관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감 및 희망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긍정적 복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적대감과 긍정적 복지($r=-.527, p<.01$)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복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적대감과 부정적 복지($r=.553, p<.01$)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에서 적대감과 희망($r=-.196$)이 가장 높았다. 셋째,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39, p<.01$)를 나타냈고, 희망과 부정적 복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374, p<.01$)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는 낮고 부정적 복지는 높았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희망은 낮았다.

그리고 희망이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는 높고 부정적 복지는 낮았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이 3.07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문화충격 2.8966점, 차별감 2.7436점 순이었으며, 희망은 3.3684점으로 대체로 높았으며, 긍정적 복지 3.3068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부정적 복지는 2.3727점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을 제외하고 중간수준(3점)보다 낮았으며,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중간수준을 상회하였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수준보다 낮았다.

3.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3.2.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0]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

〈표 1〉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복지감		평균	표준 편차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긍정적 복지			부정적 복지
차별감	1							2.7436	.77381	
향수병	.690**	1						3.0739	.81283	
적대감	.816**	.629**	1					2.4989	.74443	
두려움	.702**	.586**	.713**	1				2.3810	.81678	
문화충격	.769**	.716**	.657**	.603**	1			2.8966	.89639	
죄책감	.602**	.568**	.600**	.518**	.512**	1		2.4401	.84640	
긍정적복지	-.489**	-.412**	-.527**	-.435**	-.426**	-.344**	1	3.3068	.60196	
부정적복지	.499**	.429**	.553**	.445**	.454**	.420**	-.656**	1	2.3727	.71776
희망	-.192**	-.125**	-.196**	-.168**	-.181**	-.131**	.539**	-.374**	3.3648	.59285

**p.<01

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희망이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각각의 β 값이 2단계에서 β 값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표 2]의 각 하위영역별 Z값 참조).

3.2.2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0]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차별감, 향

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과 희망이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각각의 β 값이 2단계에서 β 값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표 3]의 각 하위영역별 Z값 참조). 따라서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희망의 증진을 통해서 가

<표 2> 긍정적 복지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 ²	ΔR^2	F	Sobel's test
차별감	희망	-.147	-.192	-4.821***	.037		23.242***	
차별감	긍정적 복지	-.462	-.499	-14.153***	.249	.212	200.321***	-4.524***
차별감	희망	.410	.443	13.023***	.329	.80	147.716***	
차별감	긍정적 복지	-.348	-.288	-8.464***				
향수병	희망	-.091	-.125	-3.111***	.016		9.677***	
향수병	긍정적 복지	-.304	-.412	-11.089***	.169	.153	122.964***	-3.076***
향수병	희망	-.258	-.348	-11.036***	.410	.241	176.324***	
향수병	긍정적 복지	.502	.495	15.666***				
적대감	희망	-.156	-.196	-4.934***	.039		24.347***	
적대감	긍정적 복지	-.425	-.527	-15.239***	.278	.239	232.227***	-4.630***
적대감	희망	-.353	-.438	-14.525***	.475	.197	271.954***	
적대감	긍정적 복지	.459	.452	15.010***				
두려움	희망	-.122	-.168	-4.188***	.028		17.538***	
두려움	긍정적 복지	-.320	-.435	-11.869***	.189	.161	140.879***	-4.054***
두려움	희망	-.260	-.354	-11.159***	.412	.223	211.038***	
두려움	긍정적 복지	.486	.479	15.104***				
문화충격	희망	-.120	-.181	-4.533***	.033		20.547***	
문화충격	긍정적 복지	-.286	-.426	-11.562***	.181	.148	133.671***	-4.415***
문화충격	희망	-.228	-.340	-10.626***	.403	.222	202.855***	
문화충격	긍정적 복지	.485	.478	14.928***				
죄책감	희망	-.092	-.131	-3.261***	.017		10.637***	
죄책감	긍정적 복지	-.244	-.344	-8.993***	.118	.101	80.881***	-3.213***
죄책감	희망	-.197	-.278	-8.480***	.366	.248	173.957***	
죄책감	긍정적 복지	.510	.502	15.348***				

*** p.<.001

〈표 3〉 부정적 복지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 ²	ΔR ²	F	Sobel's test
차별감	희망	-.147	-.192	-4.821***	.037		23.242***	4.139***
차별감	부정적 복지	-.236	-.371	-9.784***	.138	.101	95.732***	
차별감	희망	-.183	-.288	-8.739***	.371	.270	176.324***	
향수병	희망	-.091	-.125	-3.111***	.016		9.677***	2.975**
향수병	부정적 복지	.378	.429	11.670***	.184	.168	136.196***	
향수병	희망	.342	.388	11.183***	.288	.120	121.815***	
		-.393	-.325	-9.371***				
적대감	희망	-.156	-.196	-4.934***	.039		24.347***	4.210***
적대감	부정적 복지	.531	.553	16.285***	.305	.266	265.211***	
적대감	희망	.479	.498	15.196***	.377	.111	183.376***	
		-.334	-.276	-8.416***				
두려움	희망	-.122	-.168	-4.188***	.028		17.538***	3.800***
두려움	부정적 복지	.390	.445	12.200***	.198	.170	148.843***	
두려움	희망	.344	.393	11.268***	.290	.120	122.927***	
		-.372	-.308	-8.832***				
문화충격	희망	-.120	-.181	-4.533***	.033		20.547***	4.078***
문화충격	부정적 복지	.364	.454	12.525***	.206	.173	156.872***	
문화충격	희망	.320	.028	11.503***	.295	.122	126.038***	
		-.303	.042	-8.704***				
죄책감	희망	-.092	-.131	-3.261***	.017		10.637***	3.100**
죄책감	부정적 복지	.356	.420	11.373***	.177	.160	129.335***	
죄책감	희망	.319	.377	10.818***	.280	.120	117.152***	
		-.393	-.325	-9.306***				

** p.<.01, *** p.<.001

능함을 시사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을 제외하고 중간수준(3점)보다 낮았으며,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중간수준을 상회하였고 부정적 복지는 중간수준보다 낮았다. 조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중간 이하 수준이라는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인 중국인, 중국동포, 그리고 베트남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보통 이하라는 연구결과[31]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향수병이 중간보다 높은 것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높은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트

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향방문이나 모국 가족의 한국방문이 필요하며, 모국가족과의 연락 빈도 증가 또는 이민자 자조모임의 참여를 권장 하는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과 긍정적 복지 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19]의 결과를 볼 때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 및 긍정적 복지와는 부적 상관관계, 그리고 부정적 복지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낮고 부정적 복지는 높으며, 반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높으나 부정적 복지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달리 생각하면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희망 증진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로 구성된 희망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가 증명되었는데 이는 희망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더라도 “나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어”, “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능력이 있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 와 같은 내적 메시지를 통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생성하도록 계속 동기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솔한 바와 같이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희망은 긍정적 복지의 증가만을 위한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복지를 감소시키는 매개 역할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희망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 척도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수행하였는데 이 경우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에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이민을 결정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남희(2006). 희망과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달숙(1992). 희망의 간호학적 이론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3] 김수진(1989). 여성의 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서정아(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3]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25] 이증중(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1] 이희경(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15] 장여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22(2), 1-16.
 [12]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2003).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29] 황성용(2009).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여가활동 서비스가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Affleck, G., & Tennen, H.(1996). Construct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 899-922.
 [30]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28] Bradburn(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13] Chang, E. C., & DeSimone, S. L.(2001). The influence of hope on appraisals, coping, and dysphoria: A test of hope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117-129.

[1] Fugita, S. & O'Brien, D.(1985). Structural assimilation, ethnic group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63(4), 986-995.

[21] Kessler, R. C. & McCrae, J. A.(1981). Tr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1957-1976. *American Sociological Journal Review*, 46, 443-452.

[32] Lee, C. S.(2010).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f Women Immigrants on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4), 717-742.

[18] McDowell, I., & Newll, C.(1990).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23] Ong, A. D., Edwards, L. M., & Bermeman, c. S.(2006). Hope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later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263-1273.

[20] Ryff, C. D. & Keys, C. 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2] Searle, W., & Ward, C.(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 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5] Snyder, C. R.(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6] Snyder, C. R.(2000).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06-208.

[19]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24] Sandhu, D. S., & Asrabadi, B. R.(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26] Snyder, C. R., Holleran, S. A., & Irving, L. M., et al.(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박지영



- 2010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복지, 노인복지, 평생교육, 기부

이창식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나눔교육
- E-Mail: lee1246@hanmail.net